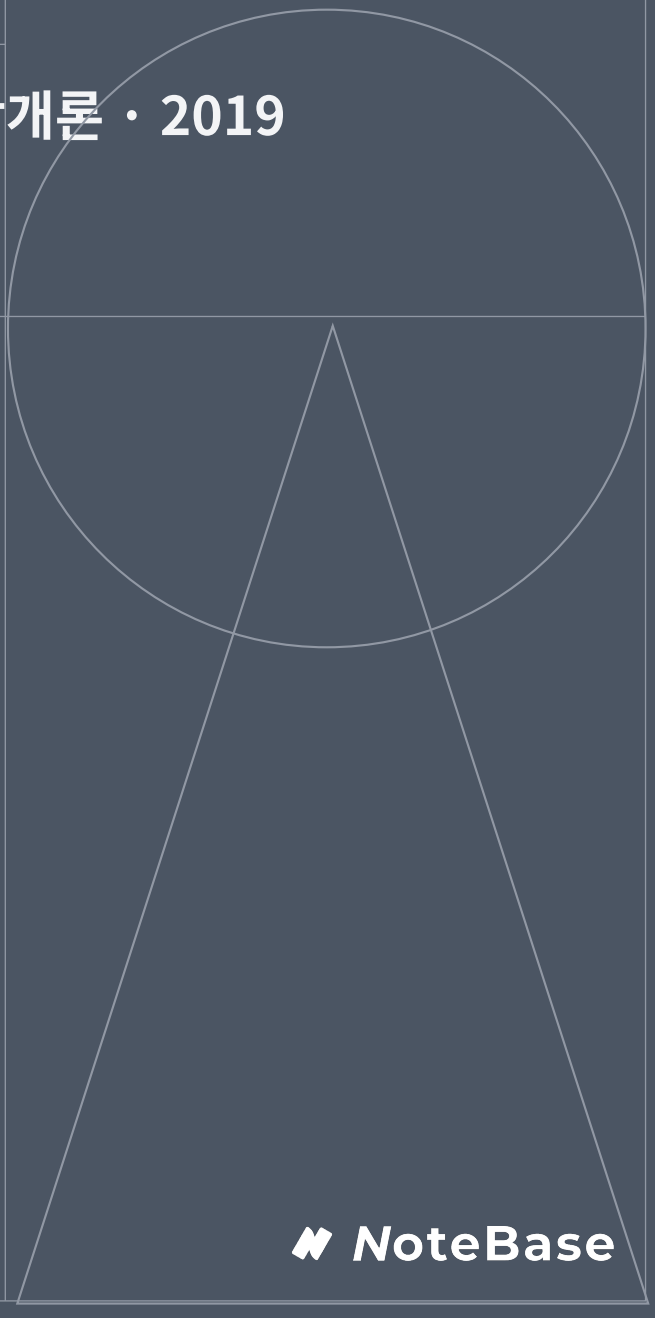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19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19

문 1.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주가지수를 조절한다.

②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조절한다.

③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아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한다.

④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증권을 사들이면 대금이 시중에 공급되고, 팔면 그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회수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공개시장조작의 목적은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지수를 직접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본원통화를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주가지수를 직접 조절한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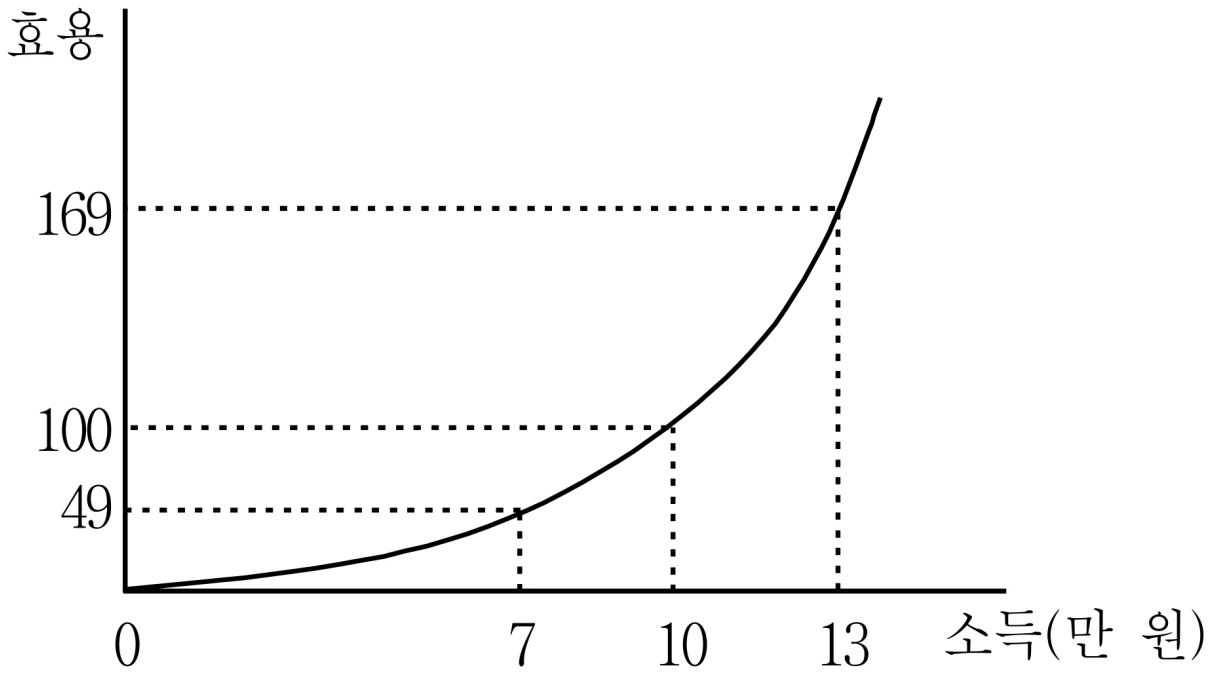
② X: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바꾸는 것은 **대출금리 조절 정책**으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중 재할인율정책에 해당한다. 이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비용을 바꾸는 방식이며, 공개시장조작은 증권의 매매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이다.

③ O: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아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본원통화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증권을 매각하고 대금을 받으면 본원통화가 감소한다. 즉, **증권 매입은 통화 공급, 증권 매각은 통화 흡수**로 이어진다.

④ X: 법정지급준비율을 바꾸는 것은 **지급준비율정책**이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등에 대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비율을 높일수록 은행이 대출 등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신용창출이 억제된다. 공개시장조작은 이러한 의무 비율을 바꾸는 대신 증권을 매매한다.

NoteBase

문 2. 그림은 乙의 소득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은 위험회피적(risk-averse)이다.

② 乙은 위험중립적(risk-neutral)이다.

③ 乙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위험에 대한 선호가 변화한다.

④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효용곡선이 소득 증가에 따라 점점 가팔라지므로, 소득 한 단위가 늘 때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한계효용이 점차 줄어든다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로축은 소득(만 원), 세로축은 효용이다. 소득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로 얻는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하며, 이는 효용곡선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그림에서는 소득이 커질수록 곡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① X: 위험회피자는 기대소득이 같은 경우 불확실한 소득보다 확실한 소득을 선호하며, 효용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진다. 그림은 반대로 기울기가 커지는 형태이므로 乙은 **위험선호적**이다. 소득이 줄 때의 효용 감소보다 같은 금액의 소득이 늘 때의 효용 증가가 더 커서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

② X: 위험중립자는 기대소득이 같으면 확실한 소득과 불확실한 소득을 동등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한계효용이 일정하여 효용곡선이 **직선**이다. 그림의 곡선은 기울기가 증가하므로 위험중립적이지 않고 위험선호적이다.

③ X: 그림에 제시된 소득 구간에서는 곡선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휘며 기울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 증가에 따라 위험회피나 위험중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위험선호적 성향이 유지**된다.

④ O: 한계효용체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추가 소득에서 얻는 효용이 작아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소득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면 효용은 100 − 49 = 51만큼,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면 169 − 100 = 69만큼 증가한다. 같은 3만 원의 소득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가 더 커지며, 곡선도 점점 가팔라진다. 이는 **한계효용체증**에 해당하므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3. 최근 막걸리 생산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였다.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소비자들이 소주보다는 막걸리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막걸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막걸리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③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 변화는 알 수 없다.

④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임금 상승은 생산비용을 높여 **공급을 감소**시키고, 막걸리 선호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킨다. 두 변화는 모두 균형가격을 높이지만, 균형거래량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거래량의 변화는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공급 감소는 균형가격을 높이고 균형거래량을 줄인다. 반면 수요 증가는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모두 높인다. 이 문제에서 임금 상승은 생산비용을 높이므로 같은 가격에서 생산자가 공급하려는 양이 줄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막걸리에 대한 선호 증가는 같은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양을 늘려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① X: 균형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균형거래량 감소는 확정할 수 없다**. 공급 감소는 거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요 증가는 거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거래량은 두 변화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② X: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는 모두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균형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 균형거래량도 수요 증가만을 고려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급 감소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O: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가격 효과는 같은 방향이므로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는 반대 방향이므로 **두 변화의 상대적 크기**를 알아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 수요 증가의 거래량 확대 효과가 더 크면 증가하고, 공급 감소의 거래량 축소 효과가 더 크면 감소하며, 두 효과가 상쇄되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X: 균형거래량은 증가·감소·불변 모두 가능하고, 균형가격은 두 변화가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상승이 확실하다**. 따라서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 변화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을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변화는 알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4.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200만 원을 받고 1년 뒤에 추가로 2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100만 원을 받고 1년 뒤에 추가로 305만 원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이자율은?

① 1 %

② 3 %

③ 5 %

④ 7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첫 번째 선택에서 현재 더 받는 100만 원과 두 번째 선택에서 1년 뒤 더 받는 105만 원의 현재가치가 같아야 한다.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 105만 원이 되는 **연 이자율은 5%**이다.

계산 과정

수령액의 차이: 첫 번째 선택은 현재 200만 원, 두 번째 선택은 현재 100만 원을 받으므로 첫 번째가 현재 100만 원 더 많다. 반면 1년 뒤에는 두 번째가 305 - 200 = 105만 원 더 많다. 두 선택의 현재가치가 같으려면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뒤의 105만 원**이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현재가치 일치 조건: 연 이자율을 소수로 나타낸 값을 r이라고 하자. 현재의 돈은 1년 뒤 $1 + r$배가 되므로, 1년 뒤 받을 돈의 현재가치는 그 금액을 $1 + r$로 나눈 값이다.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쓰면 두 선택의 차이가 상쇄되는 조건은 $100 = \frac{105}{1+r}$이다.

이자율 계산: 위 식의 양변에 $1 + r$을 곱하면 $100(1 + r) = 105$이다. 따라서 $r = \frac{105-100}{100} = 0.05$이다. 1년 동안 현재 금액 100만 원에 이자 5만 원이 붙는다는 뜻이며, 연 이자율 5%는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甲은 보유하고 있는 중고 의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미 18만 원을 수리비로 지불하였다. 甲에게 현재 이 의자의 주관적 가치는 13만 원이다. 만약 이 의자를 2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손질하면 시장에 36만 원에 팔 수 있고, 현재 상태로 팔면 1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한다. 甲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① 추가로 손질해서 36만 원에 판다.

② 그대로 이 의자를 보유한다.

③ 10만 원을 받고 이 의자를 현재 상태로 판다.

④ 甲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든 결과는 같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미 지출한 18만 원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므로 현재 선택에서 제외한다. 추가 손질 후 판매할 때의 순편익은 36 − 20 = 16만 원으로, 보유 가치 13만 원이나 현재 상태의 판매대금 10만 원보다 크다.

선지별 해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지금부터 각 선택으로 얻는 편익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뺀 순편익을 비교한다. 이미 지출한 수리비 18만 원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이므로 비교에서 제외한다. 의자를 보유할 때의 편익은 현금 수입이 아니라 돈으로 평가한 주관적 가치이다.

① 추가 손질 후 판매: 판매대금 36만 원에서 **추가 손질 비용 20만 원**을 빼면 순편익은 36 − 20 = 16만 원이다.

② 그대로 보유: 추가 지출 없이 의자를 계속 사용하여 **주관적 가치 13만 원**에 해당하는 편익을 얻는다. 따라서 비교할 순편익은 13만 원이다.

③ 현재 상태로 판매: 추가 손질 비용을 들이지 않고 판매대금 10만 원을 받으므로 순편익은 10만 원이다. 이는 의자를 보유할 때 얻는 13만 원의 가치보다도 작다.

④ 선택에 따른 결과 비교: 각 선택의 순편익은 16만 원, 13만 원, 10만 원으로 **서로 다르다**. 과거에 같은 수리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선택 결과까지 같게 만들지는 않는다.

순편익이 가장 큰 행동은 추가로 손질하여 36만 원에 판매하는 것이며,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甲은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며,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선택을 한다. 두 재화의 소비량이 각각 X와 Y일 때, 甲의 효용은 $U = X^{\alpha}Y^{\beta}$이다. X재 가격이 Y재 가격의 2배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alpha > 0, \beta > 0$)

① α가 1보다 크다면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증한다.

②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선택에서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은 0.5이다.

③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두 재화의 소비량은 모두 2배로 증가한다.

④ α와 β의 크기가 같다면 Y재의 소비량이 X재의 소비량보다 2배 많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은 X재 1단위를 더 소비할 때 같은 효용을 유지하며 줄일 수 있는 Y재의 양이다. 효용극대화점에서는 **X재 가격을 Y재 가격으로 나눈 값**과 같으므로, 0.5가 아니라 **2**이다.

선지별 해설

소득을 M, 두 재화의 가격을 각각 P_X, P_Y라고 하자. 두 지수가 모두 양수이므로 두 재화는 소비량이 늘수록 효용이 증가하며, 효용극대화점에서는 소득을 모두 지출하고 두 재화를 모두 소비한다.

① O: X재의 한계효용은 Y재 소비량을 일정하게 두고 X재를 추가로 소비할 때 늘어나는 효용이다. 효용함수를 X로 미분하면 $MU_X = \alpha X^{\alpha-1}Y^{\beta}$이다. $\alpha > 1$이면 X의 지수 $\alpha - 1$이 양수이므로, **Y를 일정하게 둔 채 X가 늘수록 한계효용도 증가**한다.

② X: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은 $MRS_{XY} = \frac{MU_X}{MU_Y} = \frac{\alpha Y}{\beta X}$이다. 이는 같은 효용을 유지하면서 X재를 1단위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Y재의 양을 뜻한다. 내부 효용극대화점에서는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이 같으므로 $MRS_{XY} = \frac{P_X}{P_Y} = 2$이다. X재 1단위를 더 사려면 Y재 2단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0.5는 **2로 고쳐야 하며**, 0.5는 반대로 X재로 표시한 Y재의 한계대체율이다.

③ O: 효용극대화 조건 $\frac{\alpha Y}{\beta X} = \frac{P_X}{P_Y}$를 정리하면 $\beta P_X X = \alpha P_Y Y$이다. 여기에 예산제약 $P_X X + P_Y Y = M$을 적용하면 최적 소비량은 $X^* = \frac{\alpha}{\alpha+\beta}\frac{M}{P_X}$, $Y^* = \frac{\beta}{\alpha+\beta}\frac{M}{P_Y}$이다. 각 재화에 쓰는 소득의 비중이 일정하므로 **가격이 그대로일 때 소득이 2배가 되면** 두 재화의 소비량도 모두 2배가 된다.

④ O: $\alpha = \beta$이면 한계대체율은 $MRS_{XY} = \frac{Y}{X}$가 된다. 효용극대화점에서 이 값은 상대가격 2와 같으므로 $Y = 2X$이다. 두 지수가 같으면 두 재화에 쓰는 지출액이 같고, **Y재 가격이 X재 가격의 절반**이므로 Y재 소비량이 X재 소비량의 2배가 된다.

NoteBase

문 7.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호황기에는 GDP 갭이 0이다.
ㄴ. 호황기에는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ㄷ. 불황기에는 국내총생산이 장기추세치보다 높다.
ㄹ.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국내총생산과 실업률 사이에는 공행성(co-movement)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호황기에는 수요가 활발해 **물가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경기변동에 따라 GDP가 늘 때 실업률은 낮아지고 GDP가 줄 때 실업률은 높아지는 **역행적 관계도 공행성에 포함된다**.

보기별 해설

ㄱ. X: GDP 갭은 실제 GDP가 잠재 GDP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낸다. 호황기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웃돌므로 GDP 갭은 **양의 값**을 갖는다. GDP 갭이 0인 것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가 일치할 때이다.

ㄴ. O: 호황기에는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활발하다. 생산설비와 노동력의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더 늘면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생겨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ㄷ. X: 불황기에는 수요와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실제 GDP가 **장기추세치보다 낮다**. 장기추세치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흐름을 나타내며, 경기변동은 실제 GDP가 이 추세를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다. 실제 GDP가 장기추세치보다 높은 상태는 호황기에 해당한다.

ㄹ. O: 공행성은 경기변동 과정에서 여러 경제변수가 서로 관련되어 움직이는 성질이다. 생산이 늘면 기업의 노동 수요가 늘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생산이 줄면 고용이 위축되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GDP와 실업률의 이러한 **역행적 관계도 공행성**에 해당한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8. 다음은 한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정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수요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① ㉠에는 수입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제외된다.

② 당해에 발생한 재고는 ㉡에 포함되어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된다.

③ ㉢에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이 포함된다.

④ ㉣은 개방경제에서 0이 될 수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당해에 국내에서 생산되었지만 팔리지 않고 남은 재화는 **재고투자**로 처리한다.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의 생산분이므로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소비에는 가계가 구입한 **수입 소비재에 대한 지출도 포함**된다. 다만 수입품은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가 아니므로, 국내총생산을 구할 때는 순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소비 등에 포함된 수입품 지출을 상쇄한다. 소비 항목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 투자에는 설비·건설 등에 대한 고정투자뿐 아니라 **재고투자**도 포함된다. 당해에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가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으면 그 재고 증가분을 투자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올해 생산한 제품이 연말까지 팔리지 않았어도 생산 자체는 이루어졌으므로 올해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③ X: ㉢ 정부지출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 지출을 뜻하며, **이전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로 받지 않고 가계 등에 지급하는 돈이므로, 그 지급 자체가 당해 생산물에 대한 지출은 아니다. 수급자가 받은 돈으로 소비재를 구입하면 그 구입액은 소비에 반영된다.

④ X: ㉣ 순수출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이다. 개방경제는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경제를 뜻하므로, **수출액과 수입액이 같으면 순수출은 0**이 된다. 교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순수출이 반드시 양수나 음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9.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자원, 공공재, 클럽재(club goods)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재화에 대한 분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막히는 유료도로
㉡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 막히는 무료도로
㉣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① ㉠: 사적 재화, ㉡: 클럽재, ㉢: 공유자원, ㉣: 공공재
② ㉠: 사적 재화, ㉡: 공공재, ㉢: 클럽재, ㉣: 공유자원
③ ㉠: 사적 재화, ㉡: 공유자원, ㉢: 클럽재, ㉣: 공공재
④ ㉠: 사적 재화, ㉡: 클럽재, ㉢: 공공재, ㉣: 공유자원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있다. 도로가 막히면 한 차량의 진입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경합성**이 있고, 막히지 않으면 경합성이 없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이나 편익을 줄이는 성질이다. 이 문제에서는 유료·무료 여부로 배제성을, 혼잡 여부로 경합성을 판단한다.

㉠ 막히는 유료도로 — 사적 재화: 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을 배제할 수 있고, 혼잡한 도로에 차량이 추가되면 다른 차량의 통행시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사적 재화이다.

㉡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 클럽재: 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의 이용을 막을 수 있지만, 혼잡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 한 대가 더 이용해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은 없는** 클럽재이다.

㉢ 막히는 무료도로 — 공유자원: 요금 납부 여부로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지만, 혼잡으로 인해 한 차량의 이용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따라서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공유자원이다.

㉣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 공공재: 요금 납부 여부로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혼잡하지 않아 한 차량의 이용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이다.

㉠ 사적 재화, ㉡ 클럽재, ㉢ 공유자원, ㉣ 공공재의 대응은 ①의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완전경쟁시장에서 X재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고정비용은 18,000원이다.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가변비용은 24,000원, 평균비용은 10.5원이며, 현재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9원일 때, 옳은 것은?

①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②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8원이다.

③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④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6원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총비용 42,000원을 평균비용 10.5원으로 나누면 현재 생산량은 4,000이다. **평균가변비용은 가변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frac{24,000}{4,000} = 6$원이다.

선지별 해설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합이므로 18,000 + 24,000 = 42,000원이다. 현재 생산량을 Q라고 하면 $Q = \frac{42,000}{10.5} = 4,000$이다. 따라서 평균가변비용은 $AVC = \frac{24,000}{4,000} = 6$원이다.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에서는 한계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같으므로** 현재 한계비용도 6원이다.

① X: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한 단위를 추가로 판매할 때 얻는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같은 9원이다. 현재 한계비용은 6원이므로 **추가 생산의 수입이 추가 비용보다 크다**. 따라서 생산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늘려 이윤을 개선해야 한다.

② X: 현재 한계비용은 **8원이 아니라 6원**이다.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추가 생산이 평균가변비용을 낮추고, 높으면 평균가변비용을 높인다. 따라서 평균가변비용이 하락하다 상승하는 최저점에서는 두 비용이 일치한다.

③ X: 단기 조업중단 여부는 가격이 **평균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을 충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현재 가격 9원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솟값 6원보다 높으므로 조업을 계속해야 한다. 가격이 평균비용 10.5원보다 낮아 현재 손실이 발생하지만, 판매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고정비용의 일부도 회수할 수 있다. 조업을 중단하면 고정비용 18,000원을 그대로 부담한다.

④ O: 평균가변비용은 생산물 한 단위당 가변비용이다. 가변비용 24,000원을 현재 생산량 4,000으로 나누면 **평균가변비용은 6원**이 된다.

NoteBase

문 11. 乙은 자신의 저축 1,000만 원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저축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모두 연 5%로 동일할 경우, 이 사업에 투입된 금융자본의 연간 기회비용은?

① 100만 원

② 150만 원

③ 2,000만 원

④ 3,000만 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금융자본의 기회비용에는 대출이자뿐 아니라 **자기자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예금이자**도 포함된다. 연간 대출이자 100만 원과 포기한 예금이자 50만 원을 합하면 150만 원이다.

계산 과정

금융자본의 연간 기회비용은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부담하는 이자비용과 포기하는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이 문제에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이자율이 모두 연 5%이므로, 각 자금에 5%를 곱해 1년간의 비용을 구한다.

자기자금 1,000만 원: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저축예금에 두었다면 연간 1,000만 원 × 5% = 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지급한 이자가 없어도 **포기한 예금이자** 50만 원은 암묵적 비용으로 포함한다.

차입금 2,000만 원: 은행에서 빌린 돈에는 연간 2,000만 원 × 5% =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1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는 명시적 비용**이다.

연간 기회비용: 자기자금의 암묵적 비용과 차입금의 명시적 비용을 합하면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이다. 이는 ②의 150만 원에 해당한다. 투입한 원금 3,000만 원 자체가 아니라, 그 자금을 1년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구한 것이다.

NoteBase

문 12.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A국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다른 경기변동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A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②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③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④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국제유가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총수요가 일정하면 새 균형에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공통 해설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A국에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원재료비와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공급하려는 실질 생산량이 줄어들어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는 생산비 상승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공급충격이다.

다른 경기변동요인에 변화가 없으므로 총수요곡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로축을 실질 국민소득, 세로축을 물가로 놓으면, 이동한 총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의 새 교점은 기존 교점보다 왼쪽 위에 형성된다. 따라서 **실질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경기침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물가도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3. 국내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어떤 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stock)의 성격을 갖는다.

②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계산에 포함된다.

③ 어떤 나라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보다 작아진다.

④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클 경우, 국내총생산은 국민총생산보다 작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에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크면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수**이므로 국민총생산이 국내총생산보다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역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다. 따라서 한 시점의 양을 나타내는 저량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유량**이다. 예를 들어 연간 국내총생산은 그해 1년 동안의 생산을 측정한다.

② X: 중간재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이다. 그 가치는 최종재 가격에 이미 반영되므로, 최종재 가치와 함께 별도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된다. 국내총생산은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하거나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를 합하여 계산한다. 중간재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재 가치에 포함된 중간재 가치를 다시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③ X: 수입품 가격 등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한다. 같은 수출량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질국내총소득은 실질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한 값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실질국내총소득이 실질국내총생산보다 작아진다**. 선지는 실질 기준에서 두 지표의 대소 관계를 반대로 설명했다.

④ O: 국내총생산은 생산이 이루어진 영역을 기준으로 하고, 국민총생산은 그 나라의 거주자가 제공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총생산에 해외에서 받은 요소소득을 더하고 해외에 지급한 요소소득을 빼면 국민총생산이 된다. 이 수취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이다. 따라서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크면 **국민총생산이 국내총생산보다 크다**.

NoteBase

문 14. 어떤 경제에서 솔로우 모형(Solow growth model)의 1인당 생산함수가 $y = \sqrt{k}$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다고 한다.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이 각각 0.3, 0.1일 때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생산량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① 2

② 3

③ 9

④ 16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으면 균제상태에서는 **저축에 따른 투자와 감가상각이 일치**한다. 이 조건으로 구한 1인당 자본량은 9이며, 생산함수에 대입한 1인당 생산량은 3이다.

계산 과정

1. 균제상태 조건: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저축률을 s, 감가상각률을 δ라 하면 1인당 투자는 sy, 감가상각은 δk이다.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으므로 자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투자가 감가상각을 정확히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균제상태 조건은 $sy = \delta k$이다.

2. 1인당 자본량 계산: $y = \sqrt{k}$, $s = 0.3$, $\delta = 0.1$을 대입하면 $0.3\sqrt{k} = 0.1k$이다. 자본량이 양수인 균제상태에서 양변을 $0.1\sqrt{k}$로 나누면 $3 = \sqrt{k}$이므로 $k = 9$이다. 이는 1인당 투자가 감가상각과 같아져 자본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수준이다.

3. 1인당 생산량 계산: 구한 9는 **생산량이 아니라 자본량**이다.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y = \sqrt{9} = 3$이므로, 균제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3이며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따르면, 실업률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실질GDP는 2% 포인트 줄어든다. 희생률(sacrifice ratio)이 5이라면 인플레이션을 2% 포인트 낮출 때 발생하는 경기순환적 실업의 변화는?

① 5% 포인트 감소

② 5% 포인트 증가

③ 10% 포인트 감소

④ 10% 포인트 증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희생률이 5이면 인플레이션율을 2% 포인트 낮출 때 실질GDP 손실은 10%이다. 이 손실을 오쿤의 법칙으로 환산하면 경기순환적 실업률은 **5% 포인트 증가**한다.

계산 과정

실질GDP 손실 계산: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율을 1% 포인트 낮추는 데 필요한 실질GDP 손실을 연간 실질GDP의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희생률이 5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데 따른 손실은 $5 \times 2 = 10\%$이다. 이 10%는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감수하는 생산 손실**이다.

경기순환적 실업률로 환산: 경기순환적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실업률을 뺀 값이다. 주어진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실질GDP가 2% 감소한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실질GDP 손실 10%에 대응하는 경기순환적 실업률의 증가 폭은 $\frac{10}{2} = 5$(% 포인트)이다. 생산 감소에 대응하므로 실업의 변화 방향은 **증가**이다.

경기순환적 실업률이 5% 포인트 증가하므로 ②의 '5% 포인트 증가'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내 A은행이 차입한 외화증권 이자로 일본 B은행에 지급한 100만 달러

② 한국 정부가 C국에 무상원조로 제공한 1,000만 달러

③ 국내 해운사가 수출화물 운송 대가로 외국 D기업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④ 외국 증권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입한 주식 대금 500만 달러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외국 증권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입 대금은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금융계정의 증권투자에 기록된다. 이자 지급·경상이전 성격의 무상원조·운송서비스 대가와 달리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금융계정은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를 기록한다. 계정은 금액이나 외화의 유출입 방향보다 거래의 성격으로 구분한다.

① 이자 지급 100만 달러: 본원소득수지의 투자소득 지급에 해당한다. 이자는 **빌린 자금을 사용한 대가**이므로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차입 원금의 거래와 그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은 구분된다.

② 무상원조 1,000만 달러: 공식 채점에서는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경상이전으로 보아 이전소득수지의 지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모든 무상원조가 경상이전인 것은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연계되거나 이를 조건으로 제공되는 투자보조금 등은 자본수지의 자본이전이다. 이 문항에는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경상이전 성격의 원조로 판단한다.

③ 운송 대가 10만 달러: 서비스수지의 운송서비스 수입에 해당한다. 국내 해운사가 외국 기업에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수출화물과 관련된 거래라도 여기서 받은 금액은 화물 자체의 판매 대금이 아니라 운송료이다.

④ 주식 매입 대금 500만 달러: 금융계정의 증권투자에 해당한다. 외국 증권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을 보유하여 받는 배당은 본원소득이지만, 주식 자체를 매입하는 대금은 금융거래이다.

따라서 ①·②·③은 경상수지에 포함되며,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는 ④이다.

NoteBase

문 17.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학파는 수요감소가 경기후퇴의 원인이며, 경기회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② 새케인즈학파는 가격경직성이 수요충격에 따른 산출량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③ 새고전학파는 단기적 경기변동을 경제주체들의 화폐적 충격과 실물부문의 기술충격에 대한 최적행위와 시장청산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④ 통화주의학파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준칙(rule)에 의한 통화정책보다는 재량(discretion)에 의한 통화정책을 강조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재량에 의한 통화정책을 강조하였다'는 설명은 통화주의학파의 주장과 반대이다. 통화주의학파는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과 시차를 이유로, 미리 정한 **준칙에 따라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케인즈학파는 소비·투자 등 총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의 판매가 줄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고 경기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가격과 임금이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아 불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경기안정화정책을 강조한다. 정부지출 확대나 감세는 수요를 늘리고, 통화 확대에 따른 금리 하락은 투자 등을 촉진하는 경로로 작용한다.

② O: 새케인즈학파는 가격이나 임금이 즉시 조정되지 않는 이유를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에서 설명한다. 수요가 감소했을 때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 기업은 판매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과 고용을 줄인다. 따라서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경우보다 산출량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가격경직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③ O: 새고전학파는 경제주체가 주어진 정보와 제약 아래 최적의 선택을 하고, 가격 조정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청산**을 전제로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화폐적 경기변동 모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화폐충격과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판단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는 기술충격이 생산성과 노동·소비·투자 선택을 바꾸어 산출량이 변동한다. 두 설명 모두 경제주체의 최적행위와 시장균형을 바탕으로 한다.

④ X: 통화주의학파는 경기 상황에 따라 정책당국이 판단하여 통화량을 수시로 조절하는 재량적 정책보다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을 강조하였다. 경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도 길고 불규칙하여, 재량적 대응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통화량을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준칙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선지의 '준칙보다는 재량'은 '재량보다는 준칙'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8. 정부가 연 소득 2,000만 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추가적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연 소득 7,000만 원에 대한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평균세율: 20%, 한계세율: 30%

② 평균세율: 20%, 한계세율: 25%

③ 평균세율: 30%, 한계세율: 25%

④ 평균세율: 30%, 한계세율: 3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소득 구간별 세금을 합한 총세액은 1,400만 원이므로, 전체 소득 7,000만 원에 대한 **평균세율은 20%**이다.
한계세율은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7,000만 원은 5,000만 원 초과 구간에 있으므로 **30%**이다.

계산 과정

총세액: 각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에 속하는 소득에만** 적용한다. 처음 2,000만 원의 세금은 2,000 × 10% = 200만 원, 다음 3,000만 원의 세금은 3,000 × 20% = 600만 원이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7,000 − 5,000 = 2,000만 원이므로 이 부분의 세금은 2,000 × 30% = 600만 원이다. 따라서 총세액은 200 + 600 + 600 = 1,400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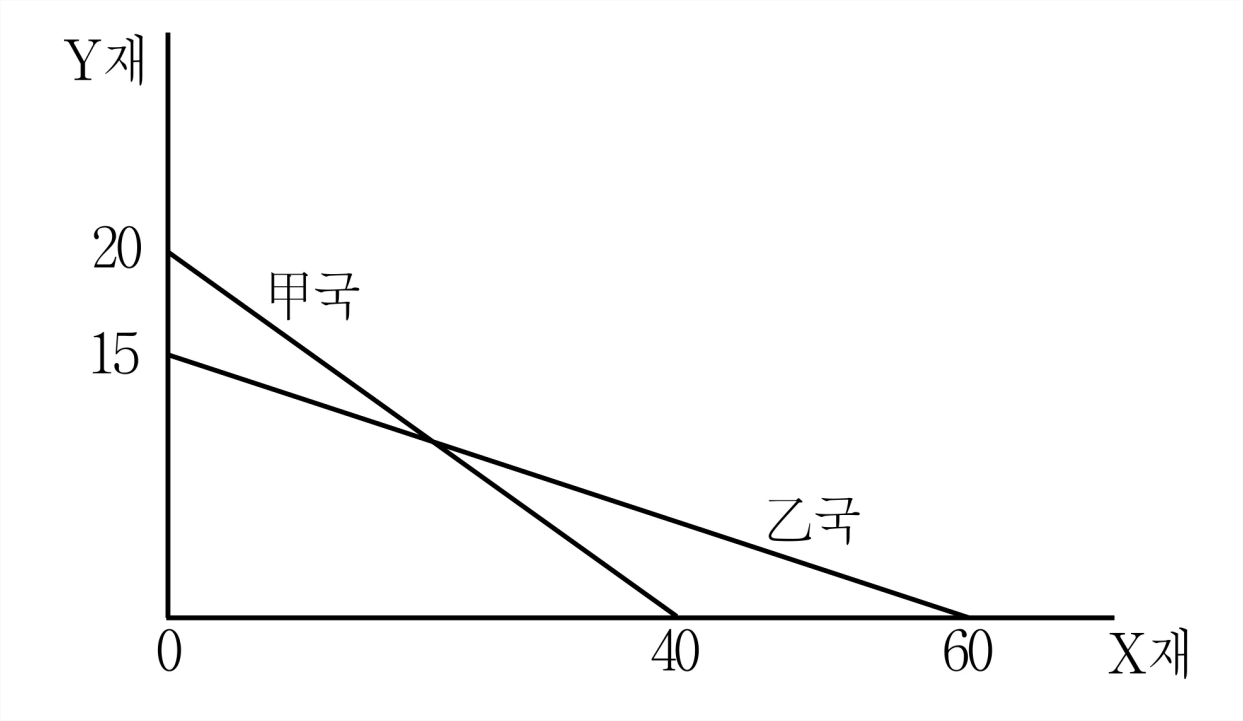
평균세율: 전체 소득 중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므로 **총세액을 전체 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금액을 모두 만 원 단위로 놓으면 $\frac{1,400}{7,000} \times 100\% = 20\%$이다.

한계세율: 소득이 조금 늘어날 때 그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연 소득 7,000만 원에서 추가로 얻는 소득은 **5,000만 원 초과 구간**에 속하므로 한계세율은 30%이다. 이 30%를 기존 소득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세율 20%, 한계세율 30%의 연결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그림은 甲국과 乙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을 하며, 교역에 따른 비용은 없다)



① 교역조건은 Y재 1단위당 X재 2~4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② 甲국의 경우 X재 1단위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Y재 2단위이다.

③ 甲국은 X재 생산, 乙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甲국은 X재 생산, 乙국은 Y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Y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甲국에서 X재 2단위, 乙국에서 X재 4단위이다. 甲국이 Y재를 수출하고 乙국이 이를 수입할 때, 양국이 모두 교역 이익을 얻는 교역조건은 **Y재 1단위당 X재 2단위 초과·4단위 미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의 가로축은 X재, 세로축은 Y재 생산량이다. 모든 자원을 한 재화 생산에 투입할 때 甲국은 X재 40단위 또는 Y재 20단위, 乙국은 X재 60단위 또는 Y재 15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므로 한 재화를 늘릴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 즉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① O: Y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甲국에서 $\frac{40}{20}$ = 2단위의 X재, 乙국에서 $\frac{60}{15}$ = 4단위의 X재이다. 甲국은 Y재 1단위를 수출하여 X재 2단위보다 많이 받아야 직접 X재를 생산할 때보다 유리하다. 乙국은 Y재 1단위를 수입하면서 X재 4단위보다 적게 내야 직접 Y재를 생산할 때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 교역조건은 **Y재 1단위당 X재 2단위와 4단위 사이**이다. 경계인 2단위에서는 甲국의 교역 이익이, 4단위에서는 乙국의 교역 이익이 없다.

② X: 甲국은 X재 40단위를 생산하는 대신 Y재 20단위를 포기하므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frac{20}{40} = \frac{1}{2}$단위의 Y재이다. 선지의 Y재 2단위는 **Y재 1/2단위**로 고쳐야 한다. X재 2단위라는 값은 甲국이 Y재 1단위를 생산할 때의 기회비용이다.

③ X: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 있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甲국이 Y재 1/2단위, 乙국이 $\frac{15}{60} = \frac{1}{4}$ 단위의 Y재이므로 乙국이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Y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甲국이 X재 2단위, 乙국이 X재 4단위이므로 甲국이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선지의 두 나라를 서로 바꾸어야 한다.

④ X: 주어진 생산 가능 곡선에서 각 재화의 최대 생산량을 비교하면, X재는 乙국이 60단위로 甲국의 40단위보다 많고, Y재는 甲국이 20단위로 乙국의 15단위보다 많다. 따라서 절대우위는 **X재는 乙국, Y재는 甲국**에 있다. 절대우위는 생산능력을,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20.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각국은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를 수출한다.
ㄴ. 요소비율이론과 부합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ㄷ. 요소풍부성에 대한 기준을 요소가격이 아닌 요소 부존량으로 보았다.
ㄹ. 헥셔-올린(Heckscher-Ohlin) 이론이 미국의 현실과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레온티에프의 역설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의 수출재가 수입대체재보다 노동집약적이라는 실증 결과이다. 이는 **요소 부존량에 기초한 헥셔–올린 이론의 예측과 어긋나지만**, 비교우위 재화를 수출한다는 원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비교우위란 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을 뜻한다. 기회비용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다. 레온티에프의 역설은 어떤 생산요소가 풍부해서 비교우위가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의 예측과 관련되며, 각국이 비교우위 재화를 수출한다는 원리 자체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ㄴ. X: 요소비율이론인 헥셔-올린 이론은 각국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자본풍부국인 미국은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재가 수입대체재보다 노동집약적으로 나타났으므로, 레온티에프의 실증 결과는 **이론의 예측에 부합하지 않았다**.

ㄷ. O: 요소 부존량은 한 나라가 보유한 생산요소의 양이다. 부존량 기준의 요소풍부성은 자본의 총량만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적 양**을 국가 간에 비교하여 판단한다. 레온티에프의 검증에서 미국을 자본풍부국으로 보는 출발점은 노동자 1명당 자본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이는 임금과 자본 사용가격 같은 요소가격으로 풍부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ㄹ. X: 레온티에프는 미국의 수출재와 수입대체재를 생산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자본과 노동을 비교했다. 수입대체재는 수입품을 미국 안에서 대신 생산한다고 할 때의 재화를 뜻한다. 분석 결과 수출재의 노동자 1명당 자본 투입량이 수입대체재보다 적었다. 따라서 자본풍부국의 수출재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라는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헥셔-올린 이론이 미국의 현실에 부합함을 확인한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조합은 ②이다.

NoteBase